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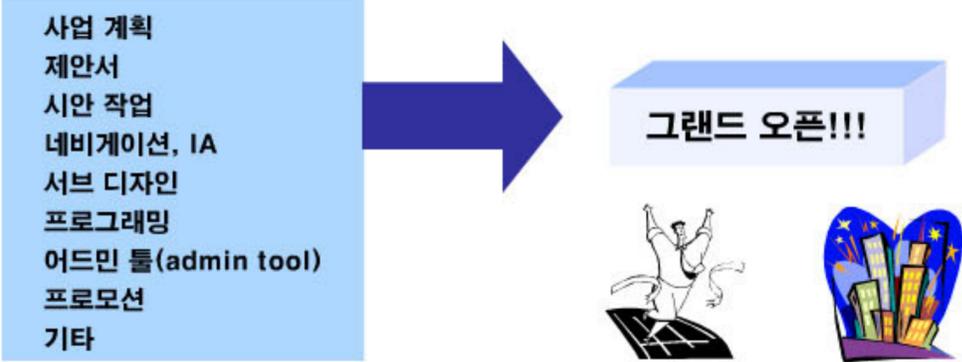


그랜드 오픈 (Grand Open)

1	그랜드 오픈 (Grand Open).....	1
2	오픈 전 준비 사항.....	1
3	체크 리스트 (Check List).....	4
4	마지막 준비.....	5
5	요점 정리.....	6

1. 그랜드 오픈(Grand Open)이란?

그랜드 오픈(Grand Open)은 사이트 정식 오픈을 말한다. 그동안 준비한 사이트 작업을 모든 네티즌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업 계획서, 제안서, 시안, 디자인 작업, 프로그램 작업 등을 열심히 해왔다. 정식 서비스를 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픈 주의 사항은 없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2. 오픈 전 준비 사항

정확한 날짜에 오차없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1 오픈 날짜까지 준비를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2단계로!

흔히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생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초기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된다면 가장 좋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일의 양이 초기 계획보다 늘어난다거나 또는 시스템 오류 등으로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 ① 오픈 일자를 연기하는 것

이 경우에는 도저히 제날짜에 오픈 할 수 없을 경우이다. 사전에 프로모션 이벤트 등으로 사이트 홍보를 미리 했다면 상당한 고민거리이다.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 사이트 규모는 큰 편이고 오픈을 앞두고 다른 웹 사이트에 배너 광고부터 해서 잡지와 신문 광고까지 모두 잡아 놓았다. 오픈 하루를 앞두고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였다. 광고는 이미 제작까지 끝났고 인쇄에 들어가고 있다. 메일 매거진으로 광고가 들어간 뉴스레터들이 발송되고 있다. 당신이 그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가상적인 시나리오지만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다. PM의 역할 중의 하나가 위험(risk) 관리 능력이다. 즉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일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초기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 ② 두번째, 제날짜에 오픈하는 것
 - 제날짜에 오픈을 한다는 얘기는 한 부분을 포기한다는 얘기이다. 제대로 안된 사이트를 오픈 해줘야 네티즌들의 원성은 뻥한 얘기이다.

그렇다면?

약간 부실하더라도 제날짜에 오픈을 하는가? 아니면 사과 공지를 띄우고 제대로 사이트를 만든 후 오픈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쌓이게 된다. 가능한 초기 계획을 잘 세워 제날짜에 오픈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픈 날짜를 연기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오픈 하는 것이 좋다. 콘텐츠가 부족하여 완성이 안된 것은 카테고리를 임시적으로 빼면 되지만 프로그램상 오류 같은 것은 치명적이고 완전한 복구가 안된 상태에서는 오픈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버그 리포팅(Bug Reporting)은 스스로 할 것

① 우선 버그 리포트 게시판을 하나 연다

기존의 프로젝트 게시판과 중복적으로 쓸 수도 있으나 일의 편리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버그리포트 게시판을 따로 만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게시판 메일링 리스트는 버그를 수정하는 사람 모두 리스트에 추가 시킨다.

안녕하세요 한동환입니다.

버그 리포트 게시판이 오픈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제목 : [에러가 난 분류명]에러 형식

예) [뉴스] 링크 문제

예) [티벨리안] 지난 목록 보기 에러

내용 : 버그가 난 주소와 자세한 설명을 적어주세요.

예) www.webmania.co.kr/cartoon/main.php

하단 지난 목록 버튼 클릭시 페이지 로딩 오류

② 가능한 많은 사람이 버그 리포팅을 해주면 좋다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사이트에 대해 분석을 할 경우 더 많은 버그를 찾아 낼 수 있다. 버그를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나 실수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이트 크기가 크다면 깊숙히 숨어있는 버그는 매우 찾기가 어렵다.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버그(Bug)?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시스템에서 엉뚱한 실행, 부정확한 결과, 충돌 등을 유발하는 프로그래밍 오류. 버그(bug)라는 말은 최초의 전자 공학적 디지털 컴퓨터인 에니악(ENIAC) 회로에서 실제로 벌레가 발견된 데서 유래했다. 버그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간이 최초의 달 착륙을 시도하기 5일전에 NASA의 프로그램에서는 달의 인력이 우주선을 밀어낸다는 가정 하에(실제로 끌어당긴다고 가정해야 하는데) 궤도를 계산했다는 버그가 발견되었다.

③ 사이트 전체를 세밀하게 모두 돌아다녀 본다

사이트를 개발하다 보면 직접 손 코딩을 통해 페이지를 만들 경우도 있고 퍼블리싱 툴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생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콘텐츠에 따라 사이트에 들어가는 내용, 기능들이 틀리다. 각각의 특성에 맞게 검색을 해 봐야 한다. 쇼핑몰이라면 주문, 결제, 배송까지 모두 시뮬레이션해 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가상적으로 테스트를 해본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가상적으로 테스트를 해본다.

- ④ 버그는 즉시 수정하도록 한다
버그 중에는 바로 수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어려운 버그를 제외하고는 바로 수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수정된 버그는 버그 게시판에 올려서 모두 다 수정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⑤ 일의 양이 많을 경우 파트를 나누어서 한다
조그만 개인 사이트가 아닌 회사 차원에서 큰 프로젝트를 할 경우 사이트 크기는 상당히 크다. 단발적으로 기존 사이트에 추가로 카테고리를 늘려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많은 카테고리별로 사이트가 나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일의 범위를 나누고 맡은 파트를 열심히 분석한다면 시간적으로 훨씬 절약 되고 일도 효율적일 것이다.
- ⑥ 회원 가입, 검색, 로그인 등 사이트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지 파악한다
사이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조차 안될 리는 없겠지만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프로그램 설계시와 프로그램이 완성되고 난 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적용이 된 상태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해봐야 할 것이다.

3 프로모션 전략, 추진 사항 점검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를 그랜드 오픈할 때는 이벤트를 하거나 나름대로 프로모션 전략이 짜여져 있을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이트를 만들어도 모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상호 배너 교환, 유료 배너 등록, 지하철 광고, 신문 광고, 잡지, 라디오, TV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프로모션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또 많은 돈을 들여 이벤트를 실시하여 사이트 홍보를 하기도 할 것이다. 실제 사이트가 오픈하게 되면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많은 손님은 대부분 프로모션을 통해 사이트를 알게 되고 찾아오게 된다. 사이트 오픈과 맞추어 프로모션이 제대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모두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4 예상 트래픽에 맞게 시스템 설계가 잘 됐는지 확인

많은 비용을 들이고 또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사이트를 구축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사이트가 오픈하고 나면 대부분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시 동시에 많은 사용자가 몰릴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설계를 할 때는 정상시 유저 수를 고려해서 만들지만 이벤트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 트래픽 예상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혹시라도 사용자가 폭주하여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이용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생각되면 시스템의 용량도 늘려주어야 할 것이다.

3. 체크 리스트(Check List)

1. 오타나 탈자는 없는가?

간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개의 오타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사이트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2. 레이아웃이 깨진 곳은 없는가?

손코딩을 하던 퍼블리싱으로 자동 생성을 하던 어떤 경우에는 화면의 레이아웃이 깨져 보일 때가 있다. 퍼블리싱에서 허용하지 않는 태그를 사용하거나 하면 실제 보이는 웹페이지에서는 깨질 수도 있다.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

3. 링크는 모두 정확한가?

역시 치명적인 실수이다. 웹 사이트의 기본인 하이퍼링크가 안된다면 창피한 일이다. 가장 좋은 것은 링크를 걸 때 정확하게 걸고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나중에 페이지 명이 바뀌거나 또는 외부 사이트를 링크했을 때 사이트 URL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계속적으로 링크 체크는 해야 하지만 최소한 오픈 전에는 모두 직접 눌러보고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4. 회원 가입은 잘 되는가?

지금도 회원 가입 없이 볼 수 있는 사이트는 많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 가입시 오류는 없는지 회원 DB는 잘 쌓이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5. 주문, 결제는 잘 되는가?

쇼핑의 예지만 모든 준비를 실전처럼 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가능한 범위까지 실전처럼 테스트 해서 실제 서비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테스트 해봐야 한다.

6. 보안 설정은 완벽한가?

회원 정보의 보안, 결제 보안, 관리자 페이지의 보안 등 여러 가지 보안 사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회원 정보가 유출되거나 그 밖의 중요 정보들이 유출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보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큰 사이트들도 해킹을 당한다.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

7. 관리자 페이지는 잘 되는가?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이 틀리는 경우가 많다.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운영이 편리하도록 어드민(admin) 페이지를 만들는데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수도 있고 소수 몇 명이 될 수도 있다.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콘텐츠 생성, 회원 관리 등에 필요한 어드민 페이지가 잘 작동이 되고 사용하기에 편리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관리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에 맞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하고 특정 권한만 주도록 설정해야 한다.

8. 자료 백업은 모두 받아놓았는가?

백업은 필수이다. 유사 사태에 대비해서 항상 정기적으로 백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오픈 전에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소스 백업을 받도록 한다.

9. 이벤트 준비는 잘 되었는가?

이벤트시 사용자가 동시에 많이 들어오고 또 회원 가입을 전제로 한다면 회원 가입도 폭주하게 된다. 그리고 상품이나 상금이 걸려 있다면 민감한 문제이다. 오류로 인하여 이벤트가 망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10. 프로모션에 대한 체크는 모두 끝났는가?

오픈과 동시에 프로모션에 들어간다면 제 날짜에 프로모션이 정확히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해보도록 한다.

11. 사전 사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에 대한 결과는 모두 반영되었는가?

정식 서비스 들어가기 전에 사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나 베타 테스트(Beta Testing)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테스트 결과들이 정식 오픈할 때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4. 마지막 준비

이제 사이트 오픈을 몇 시간 앞두고 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한다.

- 오픈 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나서도 당번제나 팀제로 지켜보도록 한다.
- 메인 페이지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네이밍 변경)
- 각자 맡았던 역할을 다시 한번 체크한다.
- 사이트 오픈 후 로그 분석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 오프라인과 연계된 사이트라면 오프라인 준비도 모두 끝났는지 확인한다.
- 기타 생각나는 것에 대해 정리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하되 오픈 후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오픈 후에 하도록 한다(일에 대해 중요도를 둔다).

5. 요점 정리

- 그랜드 오픈을 준비하면서 할 일도 상당히 많다.

정식으로 웹 서비스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오류는 없는지 모든 것이 제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정식서비스에 들어가도록 한다.

가능하면 오픈 전에 충분한 베타 테스트(Beta Testing)을 거치면 좋을 것이다.